

# 무안군, 유기·반려 동물 전담 동물복지팀 신설

### 올해 1월1일부터 유기동물보호소 직영 추진 구조·이송·관리업무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

무안군이 동물보호 및 복지 실현을 위해 축산과에 동물복지팀을 신설하고 유기동물보호소 직영 관리와 동물복지 관련 사업을 담당하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동물학대나 유기되는 동물 또한 증

가함에 따라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 등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절실한 상황으로 기존 동물보호소에서 동물의 건강 및 영양, 안전 등 동물복지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지난 12월 1일 동물복지TF팀을

긴급 편성하고 유기동물보호소 직영 관리를 위해 무안읍 용월리에 새로운 임시보호소를 마련해 12월 31일자로 위탁 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개 70마리를 이송했다. 또한 유기동물보호소의 원활한 운영과 동물들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유기동물 구조, 이송,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현장근무에 임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유기동물 및 학대 신고 등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유기동물 입양,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기동물보호소의 시설현대화와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 전문 인력에 의한 보호 관리를 위해 2024년 군특사업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허재경 축산과장은 "사람·동물 모두가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위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안전한 보호·입양 등 유기동물보호소 직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목포시, 설 연휴기간 종합상황실 운영

교통·안전·관광·보건위생·복지 등

목포시가 설 연휴 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1~24일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총괄 운영을 위한 상황반을 비롯해 교통대책반, 관광대책반, 재난재해대책반, 복지대책반, 보건위생반, 생활민원처리반, 일반민원처리반 등 8개 대책반으로 편성되는데 시는 4일간 약 200여명을 투입해 각종 사건사고 및 긴급 민원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공백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연휴 동안 귀성객의 편안한 고향 방문을 위해 고속버스 및 열차, 여객선을 증회 운행하고, 대중교통 및 교통다중이용지역을 강화하며,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유료공영주차장 7개소를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 주요 관광지나 다중이용 시설 등에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건소를 포함한 7개 선별진료소가 휴무없이 운영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중 의료정보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9(보건복지콜센터),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당직의료기관 및 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목포=기동채재본부

## 영암군 "친환경 농사하기 좋은 영암 만들자"

### 친환경농사분야 지역농협 담당자 회의 개최

영암군 농업해양정책과 친환경농사팀은 지난 13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지역농협 경제사업부 관계자 및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 담당자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농사 분야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유기질비료, 유기농업자재, 토양개량제, 벼육묘용 상토,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한 사업 방향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친환경농

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애로사항 및 각종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상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군 담당자는 "지자체와 농협이 힘을 모아 함께하는 사업이 많은 만큼 군과 지역농협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 각종 사업의 발전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하여 지역 농업발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함평읍, 장애인 일자리사업 현업근로자 15명 대상 안전보건 교육 '성료'

함평군 함평읍은 17일 오전 장애인 일자리사업 현업근로자 15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현업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작업장 안전 관리법,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요령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안상만 함평읍장은 "사업이 겨울철에 시행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읍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일반형(전일제) 2명, 복지형(참여형) 13명 등 총 15명이 참여해 환경정비 활동을 하고 있다.

함평=김광춘기자

## 영광군, 올해 55억원 투입 축산악취개선 집중 추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 2건 선정 등 총 6개 사업, 축산환경개선에 총력

영광군은 올해 6개 사업에 총 55억 원을 투입하여 축산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농가의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을 위해 축산악취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축산악취개선사업(공모)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공모)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퇴액비 살포비 지원 등이다.

특히 악취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돈 농가에게 농장별 맞춤형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을 지원하여 열악한 시설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축산용 미생물제를 매월 공급하여 악취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가축의 장내 환경도 동시에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 축협, 축산환경관리원, 생산자단체, 사업 참여 농가, 지역주민 대표 등을 중심



으로 축산악취개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축산농가 악취개선 컨설팅, 농가와 주민 간의 갈등 조정 등 축산악취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해서는 축산 악취개선이 꼭 필요하다"라며 "군에서는 악취 냄새 없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광=서희권기자

## 신안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실시 상담, 교육, 진로/자립, 건강증진 등

신안군은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과 욕구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 '상담, 교육, 진로/자립, 건강증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안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15년 8월에 개소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지도가 필요한 학업중단 청소년을 7년째 발굴/지원하여 검정고시, 상급학교 진학, 사회진입 등 다수의 성과를 이뤄냈으며, 2023년 올해도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 및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만9세 ~ 24세)의 학업 복귀 및 자기 계발을 통한 사회진입을 위해 '교육 참여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군 청소년들의 울긋불긋 성장과 성공적인 미래를 위하여 학업중단 이후 소외되지 쉬운 청소년 발굴과 아울러 맞춤형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61-240-8702)로 문의하면 된다.

신안=이명주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